

## ● 현대영미소설

제29권 1호(2022)

<http://doi.org/10.22909/smf.2022.29.1.001>

# 「벗겨진 베일」과 『나의 사촌 레이첼』에 나타난 남성성의 불안과 베일 쓴 여성으로서의 팜므 파탈

이 다 현\*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 수료)

김 일 영\*\*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벗겨진 베일」(『The Lifted Veil』, 1859)<sup>1)</sup>은 그녀 소설의 전반적인 기조인 리얼리즘보다는 초자연적인 고딕적 요소를 담고 있는 공포 소설이다. 또한 이 작품은 도덕, 사회 및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 공감, 혹은 자기희생의 주제를 다루는 엘리엇의 기존 작품과는 달리,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와

---

\* 제1저자

\*\* 교신저자

1) 본문에서 인용할 엘리엇의 *The Lifted Veil and Brother Jacob*은 이하 LV로 표기함.

학, 골상학, 타인의 의식을 통찰할 수 있는 이중 의식<sup>2)</sup>, 소생, 생리학, 과학적 실험 및 수혈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내포<sup>3)</sup>하기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은 「벗겨진 베일」이 “엘리엇의 이전 (및 이후) 작품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 같다”(Kennedy 371)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엘리엇의 “영국 마을의 친숙한 사회”(Rubinstein 177)에 익숙한 기존 비평가들이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엘리엇 정전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며, 상대적으로 엘리엇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많은 비평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sup>4)</sup>.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능력, 남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텔레파시 혹은 천리안(clairvoyance)과 같은 “초자연적”(Rubinstein 177) 능력을 갖춘 남자 주인공 래티머(Latimer)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작품을 “다소 기이한 변이”(Gray 409)로 29.1간주하면서도 비평가들의 이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엘리엇의 다른 작품에 대한 비평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몇몇 비평가들은 엘리엇과 래티머의 공통적인 예술가(작가)로서의 불안감<sup>5)</sup>, 믿을 수 없는 화자<sup>6)</sup>와 허구적인 내러티

---

2) 화자 래티머(Latimer)는 이중 의식(double consciousness)을 “절대 하나의 색조로 섞이지 않으면서 두 개의 평행한 물줄기처럼 흐르는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 이중 의식”(LV 21)으로 설명한다.

3) 엘리엇은 골상학 및 당대 (의사)과학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골상학자 조지 콤브(George Combe), 『일반 삶의 생리학』(*The Physiology of Common Life*, 1859)과 『삶과 정신의 문제』(*The Problems of Life and Mind*, 1875-1879)의 저자이자 그녀의 연인이었던 조지 헨리 루이스(George Henry Lewes)로부터 많은 영향과 영감을 받았는데, 엘리엇은 이러한 초자연적 요소와 의사 과학을 현실적으로 보기 보단 문학적 소재로 삼았다. 즉 엘리엇은 “자신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Ashton 221)을 문학적으로 재현하였던 것이다.

4) 그레이(B. M. Gray)의 “Pseudoscience and ‘The Lifted Veil’” 408쪽을 참고하면 엘리엇의 전기 작가 헤이트(Gordon S. Haight) 역시 「벗겨진 베일」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크뇌플마허(U. C. Knoepfelmacher)와 레드inger(Ruby V. Redinger)는 엘리엇과 래티머의 성격의 공통점으로 이들이 모두 신체적 나약함, 민감함, 시인의 감수성 및 자아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구바(Susan Gubar)는 엘리엇과 래티머의 공통점으로 이들의 어린 시절과 열등감을 들고 있다. 스완(Charles Swann)은 “Déjà Vu: Déjà Lu: ‘The Lifted Veil’ as an Experiment in Art”에서 엘리엇과 래티머의 공통점으로 이들의 예술가로서의 기질을 든다.

6) 갈반(Jill Galvan)은 “The Narrator as Medium in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에서, 래티에르(Martin N. Raitiere)는 “Did the Novelist Anticipate the

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벗겨진 베일」의 1878년 블랙우드 캐비닛 판(Blackwood Cabinet Edition)에 엘리엇이 덧붙인 제사 중에 나오는 “더 완벽한 인격을 만드는/ . . . / 인간적 친교의 에너지”(LV 2)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그녀의 다른 소설에서처럼 이 작품에서 사회와 공동체, 공감의 중요성이란 주제를 찾고자 하였다. 즉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엘리엇의 다른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엘리엇의 관심 주제인 공감의 윤리학(ethics of sympathy)<sup>8)</sup>과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 작품에 나타나는 래티머의 초능력을 공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벗겨진 베일」의 화자 래티머의 초능력은 공감의 관점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남성성의 불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초능력은 그의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작품 속 여성, 특히 버사 그랜트(Bertha Grant)가 어떻게 팜므 파탈(femme fatale/fatal woman)로 묘사되고 폄하되는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래티머의 불안은 빅토리아 시대의 차남이라는 입지, 즉 장남과는 달리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차남으로서의 불안과 그의 타고난 신체적 허약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래티머로 하여금 불안한 자의식과 남성성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래티머의 이러한 불안한 자의식과 남성성에 대한 불안 이면에는 또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성의 대결(sex war)에서 남성의 권위와 남성성을 위태롭게 할 수

---

Neurologist?: The Enigma of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에서, 셔틀워스(Sally Shuttleworth)는 그의 저서 *George Eliot and Nineteenth-Century Science: The Make-Believe of a Beginning*에서 이 작품의 화자인 래티머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서사가 믿을 수 없음을 각각 지적하고 있다.

- 7) 셔틀워스는 「벗겨진 베일」은 “자신의 허구성을 알고 있는 텍스트”(78)라고 주장한다. 스완은 이 작품을 통해 엘리엇이 예술적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며, 리얼리즘과 거리가 먼 “「벗겨진 베일」은 너무나 분명히 픽션이었다”(42, 원문 강조)고 주장한다.
- 8) 그레이너(Rae Greiner)는 “비평가들은 엘리엇의 작품에 대해 공감을 말하는 것에 결코 싫증을 느끼지 않는다”(300)고 논평하며 공감은 엘리엇 작품의 영원한 주제임을 주장한다. 그레이너의 “Sympathy Time: Adam Smith, George Eliot, and the Realist Novel”은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에서의 공감과 서술 방식의 연관성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엘리엇의 공감(sympathy)의 윤리학은 알브레트의 “Sympathy and Telepathy: The Problem of Ethics in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442쪽, 칼슨(Michael Carlson)의 “Famished Tigress: Sympathy and the Other in George Eliot's Fiction” 참고.

있는 여성의 권력과 베일 뒤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다.

래티머는 집안의 장자이자 자신의 이복형 알프레드(Alfred)의 약혼녀 버사를 강렬히 욕망하여 형의 사망 후 그녀와 결혼하지만, 그녀에게 매혹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아버지의 임종 후 더 강해진다. 부친의 죽음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부장의 지위를 승계한 래티머는 점차 확장되는 가정에서의 버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더욱 자신의 남성성과 가부장적 권위에 위협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결국 버사가 자신을 독살하려한다는 예지를 보게 된다. 즉 그의 불안과 여성에 대한 두려움은 의심을 낳게 되고 그 의심은 예지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래티머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은 메리 셸리(Mary Shelley), 브론테 자매(Charlotte and Emily Brontë), 그리고 엘리엇으로 이어지는 “여성 고딕 전통”(Gilbert and Gubar 455)을 계승하는 작가 대프니 듀 모리에(Daphne du Maurier)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그녀의 대표작 『레베카』(Rebecca, 1938)에 등장하는 맥심 드 윈터(Maxim de Winter)라는 가부장적 인물은 자신의 아내 레베카의 섹슈얼리티에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며,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의심을 품는다. 결국에 가서 맥심은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입지가 레베카에 의해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남성적 자아의 구축”을 위해 레베카를 “악마와 천사의 두 얼굴을 가진 (대)타자”(Horner and Zlosnik 105)로 간주하며 죽인다. 맥심의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가부장 사회에서의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과 왜곡된 생각은 듀 모리에의 또 다른 미스터리 소설 『나의 사촌 레이첼』(My Cousin Rachel, 1951)<sup>9)</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듀 모리에의 소설 중에서 “가장 명시적인 페미니스트”(Beauman 177)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 소설은 「벗겨진 베일」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그 영향력에 대한 남성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이중성과 모호함, 더 나아가 여성 섹슈얼리티가 갖고 있는 잠재적 치명성을 다루고 있다. 『나의 사촌 레이첼』의 화자 필립 애슐리(Phillip Ashley)는 여성을 철

9) My Cousin Rachel은 이하 MCR로 표기함.

저히 불신하고 혐오하는 그의 사촌이자 그를 어린 시절부터 양육해 온 앰브로즈 애슐리(Ambrose Ashley)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해 늘 의심을 품고 경계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 앰브로즈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필립은 앰브로즈의 아내 레이첼(Rachel)이 앰브로즈의 죽음에 관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하지만 필립은 레이첼에게 곧 매혹되어 그녀를 연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의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레이첼이 저택과 유산을 목적으로 앰브로즈를 독살하였고, 자신마저도 독살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벗겨진 베일」에서 래티머가 버사가 자신을 독살할 것이란 예지를 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듯이, 필립은 “레이첼을 살인자 혹은 피해자로 확인할 수 없음”(Duncan 63)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독살자로 의심하고 그녀가 죽도록 유도를 한다. 래티머처럼 필립 역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그 영향력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 자신의 “남성적 권위”(Beauman 178)를 지키고자 레이첼을 제거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엘리엇의 「벗겨진 베일」과 듀 모리에의 『나의 사촌 레이첼』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택하지 않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일인칭 남성 화자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유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야기된 남성성의 불안과 이 불안으로 인해 형성된 여성성의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팜프 파탈의 형태로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벗겨진 베일」과 『나의 사촌 레이첼』에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작품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성의 불안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차남으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불안이 만든 팜프 파탈

「벗겨진 베일」에서 래티머는 “나는 그[아버지]의 외동아들이 아니었다”(LV 5)고 진술함으로써 그에게는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가 이처럼 아버지의 외동아들이 아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집안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독점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래티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후처로서, 래티머에게는 아버지의 장남이자 이복형인 알프레드가 있었던 것이며, 그는 차남인 래티머가 접할 수 없는 장남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알프레드는 부친의 뒤를 이어 명문 학교인 이튼 스쿨과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하여 고전 문학과 인문학적 교육을 받고 아버지의 “대리인이자 후계자”(LV 5)가 된 반면, 차남인 래티머는 형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보다는 “과학적 교육이 작은아들에게 더 유용한 교육”(LV 6)이라고 판단한 부친의 뜻에 따라 개인 교사를 통해 라틴어 대신 현대 언어를 배우고, 자연을 감상하기 보단 동물학과 식물학의 체계를 학습한다.

래티머의 부친은 단호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감수성과는 거리가 멀어, 래티머는 자신과 부친 사이에는 “천성간의 근원적인 반감”(LV 27)이 있다고 말하지만, 래티머는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부친에 대해 근본적으로 “경외심”(LV 5)을 갖고 있다. 하지만 래티머가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의 부친은 집안의 상속자이자 장자인 알프레드에게 거의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 은행가인 동시에 지주이기도 한 그는 매해 가족 사유지 근처 땅을 사들이는데 이는 장자 알프레드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LV 28). 이 때문에 대부분의 토지를 만아들에게 물려주는 장자 상속권(primogeniture)의 수혜자로서 알프레드는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인문학적 교육에 탐닉할 수 있었고, 장자로서의 권위 또한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래티머의 부친이 래티머에게 실용적인 교육을 시켰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상속되는 토지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차남들에게는 직접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남성적 성격의 핵심적 척도”(French and Rothery 983)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실패는 가문의 “가부장적 남성성을 훼손”(French and Rothery 985)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부친은 돈 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실용학문에 래티머가 정진하도록 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예민한 성격에 “비실용적”(LV 7)인 래티머는 아버지가 선택해 준 실용적 학문에 거부감을 느끼며, 알프레드가 받은 인문학적 교육을 부러워하며 남몰래 플루타르크와 셰익스피어, 『돈키호테』(Don Quixote)를 읽는다<sup>10)</sup>.

10) 래티머가 탐독한 고전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영웅들을 서술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Lives of the Noble Greeks and Romans)의 작가인 플루타르크(Plutarch),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고대 기사도 낭만주의에 빠진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그린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의 작품인데, 이러한 작품에 열중하는 래티머의 성향은 실용적인 학문보다는 역사와 인문학에 가깝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알프레드]는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린 경쟁자였고 서로의 욕구는 충돌했다”(LV 15)는 래티머의 진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래티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아름다운 버사와 약혼한 알프레드에 대해 선망, 질투심 및 적대감을 느낀다. 여기에 대해 래티머는 빅토리아시대 부르주아지 사회에서 “불안의 집합체”(French and Rothery 968)로 간주되는 차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겪는다.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차남이 그렇듯이 그는 “성인이 될 때, 땅이 없을 거라는 사실은 매우 확실하나, 이 기존의 지위를 유지할 자원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선 불확실하고,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며 가족의 명예에 의존적이었다”(French and Rothery 968). 즉, 첫째 아들들에게 대부분의 토지와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차남들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상속할 토지가 없다는 점과 본래 가문에서 누리던 사회적 특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불안해했으며,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였던 것이다.

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차남 래티머와 반대로 모든 것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장남 알프레드는 래티머에게 아무런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성적으로도 “쾌활하고, 자기만족적이며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본성을 타고났다”(LV 14). 게다가 그는 잘생기고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LV 25) 남성적인 면모를 가진 반면, 래티머는 “병적인 신체적 조건”(Haight 131)을 갖고 있으며, 자기 비판적이고 “반(半) 여성적”(half-womanish, LV 14)이며 “여성스러운 기질”(LV 15)을 갖고 있다. 래티머의 말처럼 “연약하고 신경질적이며 무능한 나와 정반대”(LV 14)인 알프레드에 대한 래티머의 경쟁의식과 시기심에는 단순히 알프레드가 받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서라기보다는, 남성으로서의 열등함이 자리하고 있다. 프렌치와 로더리(Henry French and Mark Rothery)의 지적처럼 “작은아들들의 불안은 특정한 문제와 난제에 집중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남성적 불안이 있던 것이다”(994). 즉 래티머는 차남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과시할만한 능력이나 내세울 권위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외모나 신체적 조건도 열등하여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래티머는 급기야 알프레드가 자신에 대해 “반(半)은 측은적인 경멸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적대감”과 “경쟁의식”(LV 14)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래티머는 자신의 이러한 열등감을 “타고난 시적 재능”(LV 14)을 통해 이겨낼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통찰력이라는 재능”(LV 15)이라고 일컫는 ‘예지’와 타인의 의식을 통찰할 수 있는 ‘이중 의식’을 통해 자신에게 결핍된 남성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시인 지망생”(Rubinstein 180)이기도 한 래티머는 호머(Homer), 단테(Dante Alighieri), 그리고 밀턴(John Milton)이 대작을 저술할 때 영감, 비전(vision) 및 예지를 가졌던 것처럼 자신도 “새롭게 해방된 천재성”(LV 10)을 발휘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남성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래티머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시적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며 자신의 “시적 천성”(LV 17) 혹은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 자신의 열등함을 만회할 그의 “예지” 혹은 초능력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약한 신경 상태”(LV 18), 혹은 온전하지 못한 정신 및 건강 상태로 인한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즉 래티머는 가보지 않은 프라하의 전경을 비전을 통해 보고, 자신과 결혼하게 되는 버사가 후에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비전을 본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예지 능력을 강조하였지만, 그의 예지 능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래티머는 예지와 투시 능력을 통해 자신의 결핍된 남성성을 보완하고자 하지만 그가 내세우는 (초)능력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없이 단지 그의 서술상에만 언급될 뿐이다. 갈반(Jill Galvan)의 지적처럼 “그는 이런 것들을 예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는 진상 이후에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244). 따라서 그의 서사는 “허구적”(Beer 79)으로 비취질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의식적인 자아”(Ashby 142)를 구축하기 위해 그가 내세우던 예지 능력과 이중 의식은 실상은 하나의 허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 능력과 남성성에 대해 불안을 지닌 래티머가 진정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바로 남성성이기 때문에 이를 구축하기 위해 그는 ‘예지’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알프레드가 낙마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자 “형처럼 유리한 위치”(LV 17)에 있지 않았던 래티머는 장자의 권리를 획득한다. 알프레드의 죽음은 나이든 아버지에게 “자존심과 희망의 무너짐”(LV 28)을 상징하지만 래티머에게는 알프레드의 자리를 대신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며 그의 모든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래티머는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자신의 경쟁자이자 “강렬한 증오의 대상”(LV 14)이었던 알프레드의 정혼자 버사와 혼인까지 하게 된다. 래티머가 버

사와 혼인한 데에는 그녀에게 이미 이전부터 강하게 끌려서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형의 약혼녀라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모든 면에서 형 알프레드와 경쟁하였던 래티머에게 버사는 자신의 형으로부터 빼앗아야 할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버사에게 유독 래티머가 끌렸던 데에는 그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여성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제이코버스(Mary Jacobus)의 지적처럼, “미지의, 표현할 수 없는, 내면화된 성에 대한 매료는 유혹과 매혹에 대한 남성의 환상의 중심에 있다”(31). 래티머는 버사의 내면이 “음울한 지식의 사막에 있는 신비의 오아시스”(LV 18) 같아 버사에게 강하게 이끌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가 버사에게 강하게 이끌린 이유는 자신의 이중 의식으로도 간파할 수 없는 버사의 정신적/내면적 베일에 의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상”(LV 29)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래티머는 그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버사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길 바라는 데, “베일은 금지된 동시에 애태우게 존재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유의 암호”(Mahawatte 86)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래티머는 자신의 예지를 통해서 베일이 벗겨진 버사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신비롭고 매혹적인 여성으로서의 버사에 대한 환상을 갖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버사의 “꼬마 요정 같은”, “환한 소녀, 장난기 많은 요정 같은 소녀”(LV 26)의 모습을 욕망하였던 래티머는 베일 뒤에 드러난 버사의 “성숙한 여인”(LV 20)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내가 기다리던 말과 표정, 손길이 축복이던 호리호리한 소녀 버사 뒤에는 메마른 이기적인 영혼이 들추어진 더 풍만한 형태, 더 매서운 눈초리, 더 완고한 입매를 가진 버사가 계속 서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매혹적인 비밀이 아니었으며, 내키지 않는 내 시야에 끊임없이 역설하는 정확한 사실이었다.

Behind the slim girl Bertha, whose words and looks I watched for, whose touch was bliss, there stood continually that Bertha with the fuller form, the harder eyes, the more rigid mouth,—with the barren selfish soul laid bare; no longer a fascinating secret, but a measured fact, urging itself perpetually on my unwilling sight. (LV 21)

베일이 들추어지자, “소녀 버사”가 갖고 있던 “매혹적인 비밀”의 자리에는 “매서운 눈초리”를 한 “매마른 이기적인 영혼”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순수한 소녀의 모습 뒤에 혐오스럽고 파괴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래티머는 버사가 알프레드 생전에도 시동생이 될 자신을 유혹하였던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래티머는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그녀는 자신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나를 알프레드보다 더 사랑한다는 환상을 만들었다”(LV 29)고 진술함으로써 그녀의 비도덕성과 치명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래티머는 친구 찰스 므뉴에(Charles Meunier)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버사의 팜프 파탈적인 면모를 지적한다. “버사는 . . . 방문자의 예상치 못한 매력을 느끼고는 그녀의 모든 교태와 기량을 발휘했다”(LV 37). 래티머는 버사를 끊임없이 남성을 유혹하는, 관습 및 도덕률을 거스르는 치명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소유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래티머는 버사에게서 유혹과 부도덕성 이외에 파괴성을 발견한다. “버사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신비하고 공격적이며 강력한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5)는 바넷(Ryan Barnett)의 지적처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불안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래티머는 버사를 끊임없이 남성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팜프 파탈<sup>11)</sup>로 본다. 따라서 그는 버사를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파괴적인 여성성을 가진 존재, 즉 “물의 요정 닉시”(Water-Nixie, LV 11)<sup>12)</sup>, 사이렌(LV 26)<sup>13)</sup>, 그리고 이브(Eve)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과 같은 유혹적, 파괴적, 신비로운 (초)자연적 존재에 비유한다. 심지어 반지에 독을 넣어 사람들을 독살했다는 루크레치아 보르자(Lucrezia Borgia)와 닮은 “잔인한 눈을 가진 여자”(LV 18)의 초상화를 빈(Vienna)에서 보고 “독에 노출된 느낌”을 경험하였던 래티머는 자신의 의심이 만든 예지를 통해 초상화와 같이 “잔혹한 눈을 가진” 버사가 자신의 아내가 된 후 자신의 팔짱을 끼자 똑같이 “중독된 듯한 마비”(LV 19)를 경

11) 래티머는 뱀과 같이 매혹적이며 동시에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이미지러리를 버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버사를 팜프 파탈의 전형으로 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의 성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표시하고 있다”(Gilbert and Gubar 459).

12) 닉시(Nixie)는 독일 서정시에 나오는 물속에 거주하는 전설의 생명체이다.

13)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siren/syren)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위험에 빠뜨린 여자의 모습을 한 요정이며, 래티머는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이끌린 것처럼 버사에게 매혹되었다고 말한다.

협하게 된다. 이러한 예지를 통해 버사의 베일이 들춰질 때, 래티머는 버사에 대해 “어떻게 그녀의 얼굴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LV 40-41)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비인간적인 이미지에 강력한 혐오를 느낀다. 베일 속에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신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래티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래티머는 버사에게서 팜프 파탈적인 모습, 즉 자신을 독살할 치명적인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남성성과 가부장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녀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도 표출한다.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래티머는 자신의 시적 능력에 대해 “비판적”이며 “예리한”(LV 15) 버사로부터 위협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버사의 “권력”과 “힘”(LV 32)을 경계한다. 래티머는 버사가 “권력에 대한 애정”(LV 16)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일종의 “압제”(LV 29)를 행하고, 결혼하면 “그녀의 노예가 되어 그녀의 뜻대로 내가 따르게 될 것이다”(LV 32)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래티머가 자신이 예상 내지 예지했던 “매정한 소녀”(LV 26)이자 팜프 파탈로서의 버사, 더 나아가 자신이 “무력감”(LV 19)을 느낄 정도의 “가장 강력한 지배력”(LV 15)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버사를 그녀의 본모습으로 단정하는 시점은 그의 부친의 임종일이다. 즉 부친의 죽음으로 래티머가 가부장의 위치에 자리하게 된 날이었다. 예지에서와 같이 서재의 “아버지가 앉던 아버지의 가죽 의자”(LV 34)에 실제로 앉게 되는, 즉 가장으로서의 지위에 오르게 된 래티머는 버사에 의해 열세에 몰렸던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자 한다. 버사가 이른 아침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미소를 짓고, 주변인들에게 “우아하고 영리한 여자”(LV 33)로 인식되는 반면, 하인들과 이웃들에게 “병약하고, 추상적이며, 몇몇이 의심하는 것처럼 미친 남편”(LV 33)으로 비춰졌던 래티머는 집안 내외에서 확장하는 버사의 영향력을 저지하고, 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버사를 악녀 더 나아가 자신을 독살하려는 팜프 파탈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래티머가 버사 위에 군림하며 실제적으로 가부장적 지위를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은 므뉴에와 관련된 일화에서 드러난다. 부친의 임종 몇 년 후 래티머가 유학중 사귀었던 유일한 친구 므뉴에가 결혼한 래티머 내외를 방문한다. 과학자로서 유럽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던 므뉴에는 복막염으로 죽어가는 버사의 하녀 아처 부인(Mrs. Archer)의 상태를 살핀 후, 자신이 연구 중인 소생 실험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래티머에게 청한다. 므누에는 “이런 일에는 항상 여자들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LV 39)며, 당사자인 아처 부인이나, 그녀의 여주인인 버사에게 자신의 실험에 대해 알리지도 않고, 어찌 보면 제삼자에 지나지 않는 래티머에게 허락을 구하였던 것이다.

실험을 하기 위해 므누에와 래티머가 아처 부인의 침실로 들어가자 옆에서 간호하고 있던 버사는 의사도 아닌 남편 래티머가 므누에와 함께 들어오는 보고 “화가 나 질문하는 듯한 표정으로” 므누에를 쳐다보지만, 므누에는 그녀에게 “침묵을 강요하듯 손을 든다”(LV 40). 그리고 래티머는 버사가 대거시킨 두 명의 여자 하인들을 “해산시키고 우리가 부를 때까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한다”(LV 41). 래티머와 므누에가 함께 실행한 “남성주의 문명의 기교”(Gilbert and Gubar 457), 즉 과학적 실험에서 아처 부인이나 버사와 같은 여성의 견해와 역할을 모두 배제하며 그들의 침묵과 복종을 이처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에는, 집안의 모든 일은 가장으로서의 남성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래티머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하인들로부터 “반(半) 경멸적 동정”(LV 33)을 받던 래티머는 버사에 의해 침식당하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되찾는다.

두 남성이 행한 실험은 “지식의 위계질서와 통제되지 않은 여성의 본성보다 우세한 남성 과학의 힘”(Wood 172)을 시사한다. 남성들의 실험은 여성의 본성과 섹슈얼리티를 통제되지 않는 원초적인 것이자 파멸적인 것으로 나타내며, 버사를 비인간적인 존재, 즉 “사악한 불사신”(LV 41)과 “교활한 짐승 같은”(LV 42) 존재로 환원시킨다. 또한 “남성 과학의 힘”은 여성을 남성들의 경험과 앎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지식의 위계질서를 확고히 한다. 므누에가 버사에게 아처 부인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절대적인 확신을 말하지 않았다”(LV 39)는 점에서, 즉, 므누에가 환자의 보호자격인 버사에게 환자의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세계는 여성의 역할이 철저히 배제된 남성중심 사회임이 드러난다. 또한 래티머의 서술에서 므누에와의 실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버사의 음모와 그녀의 비인간적 모습을 그들(남성들)만의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여성에게 금지된 지식을 만들어 자신들의 지식을 최상위에 두는 지식의 위계질서를 만듦으로써 남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III.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만든 베일 쓴 팜프 파탈

『나의 사촌 레이첼』에는 미망인이 되어 실제로 베일을 쓴 여인 레이첼이 등장하는데 주위 남성들의 선입견, 여성 혐오 및 불안감은 그녀를 팜프 파탈로 단정한다. 즉, 『나의 사촌 레이첼』은 남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혐오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의 일인칭 화자 필립은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영아 때 고아가 되어 스무 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가부장적 지도자”(Auerbach 91)인 그의 사촌 엠브로즈에게 입양되어 양육된다. 엠브로즈는 “신경질적이고 냉소적인 여성 혐오가”(MCR 23)이자 “여성 혐오적 신념”(Beauman 174)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콘월(Cornwall)의 저택에 여성의 출입을 금하며 하인들과 심지어 개들도 수컷만 허용하는 바람에 필립은 여성과의 교류가 거의 없이 자란다. 이에 대해 필립의 대부이자 후견인인 닉 켄달(Nick Kendall)은 엠브로즈의 양육 방식으로 인해 여성이 부재한 환경에서 자란 필립에게 “여자에 대해 무지하게 자랐겠구나, 만약 네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힘들 거야”(MCR 67)라는 말로 자신의 우려를 표한다. 닉의 우려대로 여성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자란 필립은 “엠브로즈가 여자에 대해 거의 몰랐다면 난 그보다 덜 알았다”(MCR 254)고 고백할 정도로 여성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며, 동시에 여성을 혐오하고 의심하는 남성중심적 사고의 소유자가 되어 버린다.

엠브로즈는 요양을 위해 떠난 이탈리아에서 만난 친척 레이첼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와 결혼까지 하지만 여성에 대한 그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엠브로즈는 필립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와달라고 하며 “나의 골칫거리 레이첼이 드디어 나를 망쳤다”(MCR 35)는 기묘한 내용의 전갈을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 엠브로즈는 자신의 아내인 레이첼에게 아무런 유산을 남기지 않는데, 이는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가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엠브로즈의 죽음 이후 콘월 저택에 방문하는 레이첼은 항상 검은 상복을 입고 베일을 쓰고 다니는데, 그녀의 모습은 수컷을 잡아먹는 블랙 위드(black widow)<sup>14)</sup>의 이미지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녀가 남성에게 위협적인 팜프 파탈적 모습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엠브로즈의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그

의 사망원인을 뇌종양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에 대한 의심이 담긴 편지를 전달받은 필립은 레이첼이 엠브로즈의 죽음에 관련되었을 거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며, 레이첼이 엠브로즈를 독살하였듯이 자신도 독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즉 포스터(Margaret Forster)의 지적처럼, “여자가[레이첼이] 천사인지 악마인지 절대 알 수 없지만”(252-53), 필립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으로 인해 레이첼을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을 위협하는 팜므 파탈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레이첼이 엠브로즈의 죽음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필립은 작품 초반에 레이첼에 대해 적대적이며 엠브로즈의 복수를 다짐한다. 하지만 그녀가 콘월의 저택에 머무는 동안 필립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연모하게 된다. 래티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여의고 여성에 대해 무지했던 필립은 생전 처음 교류하게 된 레이첼과 곧바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아워바흐(Nina Auerbach)의 지적처럼, “레이첼은 그들이[필립과 엠브로즈] 알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78). 여성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콘월 저택에서 고립되었던 필립은 래티머가 벼사에게 매혹되었듯이 비밀스럽고 신비에 싸인, 베일을 쓴 미지의 여성 레이첼과 그 베일 뒤에 감춰진 그녀의 섹슈얼리티에게 현혹된다. 필립은 콘월 저택에 일시 방문한 레이첼이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 남길 바라며 그녀가 저택을 꾸미고 안주인 역할을 하게 한다. 하지만 집안 내에서 점차 커져가는 레이첼의 영향력과 이와 관련된 그녀의 능력은 남성중심적인 저택에서 보이지 않는 “패권의 다툼”(Beauman 174)을 초래하며, 남성으로서의 필립의 권위를 위협하게 된다.

가부장적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남성의 권력이 지배하는 콘월 저택에서 레이첼이 경제적 지출을 책임지고 침실을 꾸미는 등 가정의 구조적인 환경에 변화를 주고, 손님들을 초대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저택의 주인으로서

---

14) 메이어슨(Julie Myerson)에 의하면 레이첼은 먹잇감을 기다리며 거미줄을 치는 검은 거미, 즉 블랙 위도(black widow)를 연상시킨다. 그녀에 의하면 “실은, 블랙 위도 레이첼의 형상을 한 사악하고 잡아먹을 듯한 여성의 위협은 첫 장부터 나타나는 데, 레이첼은 인내심 있게 지켜보고, 베를 짜고, 기다리는 방식에서 거미나 다름없다.” (“My Cousin Rachel: Daphne du Maurier’s take on the sinister power of sex.” *The Guardian*. 17 June 2017. [www.theguardian.com/books/2017/jun/17/rereading-my-cousin-rachel-daphne-du-maurier](http://www.theguardian.com/books/2017/jun/17/rereading-my-cousin-rachel-daphne-du-maurier). 10 Nov. 2021.)

의 필립의 권위와 위상에 불안을 느끼게 한다. 레이첼이 여성의 입회가 금지되었던 “집안을 여성화한다”(Beauman 176)는 사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남성적 권력과 주체성을 내세워야 하는 필립에게는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하인들과 이웃들은 점차 레이첼을 저택의 “여주인”(MCR 207)으로 인식하고 그녀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하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여성이 주변화되고 그들의 영향력이 공포감에 가까운 혐오로 간주되는 세상”(Beauman 174)에서 레이첼의 영향력은 필립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다.

필립이 레이첼에게 애초에 저택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준 이유는 레이첼이 “그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Mitchell 38)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필립은 레이첼이 엠브로즈의 사인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지만, 콘월 저택을 찾아온 레이첼이 “애슬리 부인[엠브로즈의 과부]로서의 권리에 대한 언급”(MCR 68)이나 상속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고 이탈리아어 과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하여 필립은 그녀가 애슬리 가문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의 의심은 그녀에 대한 애정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레이첼이 콘월 저택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자, 그녀가 재산 때문에 엠브로즈를 죽였을지 모른다는 의구심과 그에 따른 불안감이 점차 필립의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된다.

남성으로서 자아 중심적이며 여성에 대해 무지한 필립은 자신의 생일 전야에 너과 그의 딸 루이즈(Louise)를 레이첼과 함께 하는 식사에 초대하며, 레이첼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지도 않고 자신이 레이첼과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레이첼이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착각한 필립은 자신이 엠브로즈의 유산을 법적으로 상속하게 되는 스물다섯 번째 생일에 애슬리 집안의 가보인 장신구와 함께 모든 유산을 레이첼에게 양도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그녀에게 준다. 하지만 필립의 유산 양도 서류는 형식적인 양도일 뿐, 실제로는 레이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재산과 저택을 관리하며, 레이첼이 죽거나 재혼을 하면 다시 자신에게 권리가 이전되고, 자신이 죽으면 먼 친척에게 재산이 양도될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한다(MCR 255-56). 이런 묘한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보맨(Sally Beauman)이 주장하듯 『나의 사촌 레이첼』은 “유언, 유서, 상속과 깊이 관련이 있는 소설 속의 남성 헤게모니”(175)를 다루며 엠브로즈와 필립은 “돈과 결혼이라는 무기로 그녀를 쟁취하고 지배하려고 한다”(175)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필립의 이 유산 양도 서류는 실제로 레이첼의 모든 재산을 필립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루이즈는 바로 이러한 점을 필립에게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지적한다. “만약 그녀가[레이첼이] 너와 결혼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너에게 돌아갈 거야”(MCR 323).

레이첼이 당연히 자신과 결혼하고자 한다고 착각한 필립은 레이첼의 거부 의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급기야 레이첼과 그가 실제로 결혼했다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열병을 앓은 후 필립은 레이첼과의 혼인이 자신만의 “환상”, “상상” 및 “꿈”(MCR 343)이었다는 점을 자각하고, 레이첼이 자신과 결혼할 계획이 없음을 깨닫는다. 필립은 자신에게 받은 재산 양도 서류를 공증 받은 레이첼이 더 이상 영국에 머무르지 않고 이탈리아로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따라서 “엠브로즈가 그렇게 미치광이가 아니었다라면 이곳이 당신 집이었을 것이며, 당신이 여기에 속해 있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요?”(MCR 170)라고 레이첼에게 물으며 “그것[유산]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다”(MCR 256)고 말했던 필립은 레이첼에게 이전하려고 했던 엠브로즈의 유산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되돌린다. 그는 저택 정원에 다리가 공사 중이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실을 레이첼이 산책하러 갈 때 알려주지 않고, 레이첼이 집을 비운 사이 그녀가 엠브로즈를 독살하고 자신도 독살하려고 한다는 확신 하에 서랍을 뒤져 증거를 찾기 시작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레이첼은 결국 다리를 건너다 사망하는데, 필립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는 레이첼이 죽음으로써 혹은 그녀가 독살자임을 증명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그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엠브로즈가 필립을 “그 자체로 직업”(MCR 16)인 자신의 후계자로 양육했듯, 필립은 자신이 자란 남성 중심의 저택과 토지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지주로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필립은 “나는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도, 다른 저택을 소유하고 싶지도 않았다. 엠브로즈는 이 저택만을 위해 나를 키우고 훈련시켰다. 이 저택은 내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둘의 것이었다”(MCR 29)고 말할 바와 같이 콘월 저택의 주인은 사실상 애슐리 가문 남성임을 밝힌다.

필립은 엠브로즈가 자신에게 상속한 저택과 토지를 애당초 레이첼에게 양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남성적 권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여성 혐오주의자 엠브로즈가 레이첼에게 부정, 과소비 및 독살(MCR

242-44)을 저지른다는 누명을 씌웠듯 필립도 똑같은 “근거 없는 의혹”(Forster 252)으로 그녀를 의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불신으로 앰브로즈가 레이첼에게 아무 유산도 남기지 않았듯이 필립도 그녀가 마땅히 상속 받아야 할 모든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앰브로즈와 필립은 가부장제를 대변하는 동일 인물로 서로가 서로의 알터 이고(alter ego)이자 “분신”(Beauman 177)으로 볼 수 있다. 필립이 자신을 앰브로즈의 유령(MCR 9)일지도 모른다고 하며, 레이첼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앰브로즈의 편지를 꿈속에서 다시 읽는 장면은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레이첼이 죽는 순간 필립을 앰브로즈(MCR 387)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필립이 앰브로즈의 알터 이고를 넘어 앰브로즈의 상징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앰브로즈와 똑같이 되고 싶어하는 필립의 고백을 통해서도 제시된다. “나는 앰브로즈가 그랬던 것처럼 치안판사가 될 것이며, 언젠가 의회에 복귀할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선대처럼 계속해서 공경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땅을 잘 경작하고 사람들을 돌보며”(MCR 8).

소설 속 반(反)페미니스트(antifeminist)로 볼 수 있는 앰브로즈는 치안판사였으며 그의 알터 이고, 더 나아가 그의 더블이기도 한 필립은 그의 자취를 따라가려한다. 두 남성은 가부장적 인물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수호자이며, 레이첼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팜프 파탈로 간주되어 처단되는 인물이다. 그녀가 실제로 애슐리 가문의 남성들을 독살했거나 그들의 재산을 탐하였는지는 불확실하나 소설 속 남성들, 즉 필립과 앰브로즈의 시각에 비친 레이첼은 유혹적이고 치명적이며 돈에 욕심이 많은 팜프 파탈로 비춰진다. 레이첼은 가부장적 사회가 두려워하는 여성성이라는 베일을 쓴 전형적인 여성이자 전형적 여성으로서의 팜프 파탈인 것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여도 늘 그 자리에 있고 혹은 늘 회귀하는 베일에 싸인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사촌 레이첼』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똑같이 “옛날에는 사람들을 포터닝스에서 교수형에 처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다”(MCR 5, 387)는 필립의 서술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필립은 어릴 때 앰브로즈와 함께 포터닝스(Four Turnings) 사거리에서 아내를 죽인 혐의로 교수형을 당한 톰 젠킨(Tom Jenkyn)을 보았던 일을 회상하는데, 이는 아내를 죽인 젠킨처럼 자신이 레이첼을

죽었다는 죄책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로즈가 레이첼에게 가졌던 의심을 가부장적 사고를 이어 받은 필립이 답습하듯이 소설은 순환과 반복의 구조를 갖는다. 레베카가 맥심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 ‘나는 돌아온다’(Je Reviens)라는 글귀가 쓰여진 자신의 배와 함께 시신으로서 맥심에게 돌아왔듯이, 필립이 죽음으로 이끈 레이첼 역시 가부장제의 폭력과 억압을 대변하는 필립에게 유령처럼 끊임없이 돌아올 것이다.

#### IV. 결론

「벗겨진 베일」은 그 주제와 장르적 이질성 때문에 엘리엇의 작품 중 많은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듀 모리에의 『나의 사촌 레이첼』은 그녀가 천착하던 여성성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녀의 대표작인 『레베카』와 같은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학적, 학문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두 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가부장 사회에서의 남성성의 불안과 이로 인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근본적으로 팜프 파탈로 간주하는 “남성의 시선”(Beauman 176)과 편견을 살펴보았다. 「벗겨진 베일」과 『나의 사촌 레이첼』은 한 세기 정도의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부장적 세계관이 팽배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각각의 소설이 그리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는 공통적으로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을 남성성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에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징적 의미에서건 실제적 의미에서건 여성을 베일을 쓴 존재로 보는 것이다. 각각의 작품에서 여성이 쓴 베일은 드러나지 않은 혹은 감춰진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유로 남성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베일에 싸인, 혹은 베일 뒤에 감춰진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해 환상과 호기심, 더 나아가 매혹을 갖게 만든다. 하지만 여성의 베일이 벗겨졌다고 여긴 순간, 그들이 환상 속에 구축한 여성의 매력과 신비감은 오히려 여성에 대해 혐오와 공포감으로 바뀐다.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공포는 근원적으로 여성이 갖고 있는 영향력, 혹은 권력에 대한 가부장적 남성들의 두려움에 기인한다. 여성 혹은 여성성

의 힘을 인지하기 시작한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를 박탈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여성을 근본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베일을 쓴 악녀, 더 나아가 남성을 파멸시키는 팜므 파탈로 보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베일에 싸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매혹적이며 남성의 환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근원적으로 남성의 세계를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음은 19세기 빅토리아시대 「벗겨진 베일」과 20세기에 쓰여진 『나의 사촌 레이첼』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 주제어

조지 엘리엇, 「벗겨진 베일」, 대프니 듀 모리에, 『나의 사촌 레이첼』, 팜므 파탈, 여성의 섹슈얼리티

www.kci.go.kr

- Albrecht, Thomas. "Sympathy and Telepathy: The Problem of Ethics in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ELH* 73.2 (2006): 437-63.
- Ashby, Kevin. "The Centre and the Margins in 'The Lifted Veil' and *Blackwood's Edinburgh Magazine*." *George Eliot-George Henry Lewes Studies* 24/25 (1993): 132-146.
- Ashton, Rosemary. *George Eliot: A Life*. London: Penguin, 1997.
- Auerbach, Nina. *Daphne du Maurier: Haunted Heires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0.
- Barnett, Ryan. "Behind the Veil: Gender and Apocalypse in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1859) and Wilkie Collins's *The Two Destinies* (1876)." *FORUM: University of Edinburgh Postgraduate Journal of Culture and The Arts* (2007): 1-13.
- Beaman, Sally. "My Cousin Rachel." *The Daphne du Maurier Companion*. Ed. Helen Taylor. London: Virago, 2007. 172-78.
- Beer, Gillian. *George Eliot*. Sussex: Harvester, 1986.
- Carlson, Michael. "Famished Tigress: Sympathy and the Other in George Eliot's Fiction." *George Eliot-George Henry Lewes Studies* 58/59 (2010): 61-76.
- Du Maurier, Daphne. *My Cousin Rachel*. Naperville: Sourcebooks Landmark, 2009.
- Duncan, Rebecca. "Dark Mirrors and Disembodied Spirits: Gender, Sexuality and Incest in Selected Fiction by Daphne du Maurie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pe Town, 2010.
- Eliot, George. *The Lifted Veil and Brother Jacob*. Ed. Helen Small, New York: Oxford UP, 2009.
- Forster, Margaret. *Daphne Du Maurier*. London: Arrow, 1994.
- French, Henry, and Mark Rothery. "Male Anxiety Among Younger Sons of the English Landed Gentry, 1700-1900." *The Historical*

*Journal* 62.4 (2019): 967-95.

- Galvan, Jill. "The Narrator as Medium in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Victorian Studies* 48.2 (2006): 240-48.
- Gilbert, Sandra M. and Gubar, Susan.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2nd edition. New Haven: Yale UP, 2000.
- Gray, B. M. "Pseudoscience and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Nineteenth-Century Fiction* 36.4 (1982): 407-23.
- Greiner, Rae. "Sympathy Time: Adam Smith, George Eliot, and the Realist Novel." *Narrative* 17.3 (2009): 291-311.
- Haight, Gordon S. editor. *A Century of George Eliot Criticism*.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
- Horner, Avril, and Sue Zlosnik. *Daphne du Maurier: Writing, Identity and the Gothic Imagination*. New York: Macmillan, 1998.
- Jacobus, Mary. *Reading Woman: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London: Methuen, 1986.
- Kennedy, Meegan. "'A True Prophet'? Speculation in Victorian Sensory Physiology and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71.3 (2016): 369-403.
- Knoepfmacher, U. C. *George Eliot's Early Novels: The Limits of Realism*.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8.
- Mahawatte, Royce. *George Eliot and the Gothic Novel: Genres, Gender, Feeling*. Cardiff: U of Wales P, 2013.
- Mitchell, Margaret. "'Beautiful Creatures': The Ethics of Female Beauty in Daphne du Maurier's Fiction." *Women: A Cultural Review* 20.1 (2009): 25-41.
- Myerson, Julie. "My Cousin Rachel: Daphne du Maurier's take on the sinister power of sex." *The Guardian*. 17 June 2017.  
[www.theguardian.com/books/2017/jun/17/rereading-my-cousin-rachel-daphne-du-maurier](http://www.theguardian.com/books/2017/jun/17/rereading-my-cousin-rachel-daphne-du-maurier). 10 Nov. 2021.

- Raitiere, Martin N. "Did the Novelist Anticipate the Neurologist?: The Enigma of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Literature and Medicine* 30.1 (2011): 144-70.
- Redinger, Ruby V. *George Eliot: The Emergent Self*. London: Bodley Head, 1976.
- Rubinstein, Elliot L. "A Forgotten Tale by George Eliot." *Nineteenth-Century Fiction* 17.2 (1962): 175-83.
- Shuttleworth, Sally. *George Eliot and Nineteenth-Century Science: The Make-Believe of a Beginning*. New York: Cambridge UP, 1984.
- Swann, Charles. "Déjà Vu: Déjà Lu: 'The Lifted Veil' as an Experiment in Art." *Literature and History* 5.1 (1979): 40-57.
- Wood, Jane. "Scientific Rationality and Fanciful Fiction: Gendered Discourse in *The Lifted Veil*." *Women's Writing* 3.2 (1996): 161-76.

# Male Anxieties and Veiled Women as *Femmes Fatales* in 'The Lifted Veil' and *My Cousin Rachel*

Abstract

Da Hyun Lee · Ilyeong Kim

George Eliot's 'The Lifted Veil' (1859), and Daphne du Maurier's *My Cousin Rachel* (1951) portray the patriarchal society and its prejudiced gaze directed toward women. The first-person male narrator-protagonists in each novel, due to their male anxieties and their fear of female sexuality and power, regard women as veiled beings whose disguised sexuality evokes enchantment as well as fear. In 'The Lifted Veil', Latimer's lack of masculinity and his inferior social position as the younger son lead him to view Bertha, his wife, as a veiled woman whose sexuality makes her attractive and fearsome. Latimer ultimately becomes so fearful of Bertha's mysterious sexuality behind her (metaphorical) veil—a threat to his patriarchal position—that he announces Bertha as a *femme fatale* who tries to poison him, thus justifying her dismissal. Phillip Ashley in *My Cousin Rachel*, who is raised by Ambrose Ashley, his misogynistic cousin, is prejudiced against and is ignorant about women because his life is confined to a Cornish estate where women are banished. So Phillip considers Rachel, the widow of Ambrose who always wears a black veil, a *femme fatale* going after men's property by seducing and poisoning them. Consequently, Phillip, as Ambrose's heir and successor, leads Rachel to her demise, retrieving all the Ashleys' inheritance and estate.

## Key Words

George Eliot, The Lifted Veil, Daphne du Maurier, My Cousin Rachel, femme fatale, female sexuality

논문 투고 일자 : 2021. 11. 12.

심사 완료 일자 : 2022. 04. 06.

게재 확정 일자 : 2022. 04. 15.

[www.kci.go.kr](http://www.kci.go.kr)